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5, 성전 주위로 집결하다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세션 5, 성전 순회 집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왜 르우벤이 종속되게 되었는지, 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장자의 예식으로 삼아 높아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다가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기자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2장과 3장에서 유다 지파를 그토록 두드러지게 부각시킨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두 번째 실제 관심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두 번째 관심은 성전의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다윗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2장과 28장에서 다윗은 이것이 여호와의 나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왕국이다. 그러므로 이 왕국이 실제로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면, 다윗이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수단일 뿐이라면, 그 왕국의 중심은 야훼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임에 틀림없습니다.

왕국이 실제로 무엇인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 내에서 그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방식에 대한 합당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특정 지파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이 부족은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왕국의 중심에 있는지에 대한 매우 길고 자세한 설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국에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읍과 거주지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만 있을 뿐, 한 부족으로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시므온은 적어도 유다 내에 한 지파로서

자신들의 영토인 특정한 지정된 지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레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레위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레위로 시작하여 처음 15절에서 포로기까지의 제사장 혈통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들은 부족 내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차이점 중 하나는 민수기와 레위기에서는 아론의 자손, 즉 고핫의 자손이 제사장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신권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대기 기자의 경우 레위 사람이라면 제사장이 속한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역대기에서도 레위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지만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기자가 이 족보를 제시하는 다음 부분에서 하는 일은 레위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16절부터 19절까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솜의 아들들과 고핫의 아들들과 므라리의 아들들을 나열합니다. 이제 여기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고핫 자손입니다. 민수기로 돌아가면 고핫의 아들들이 성전과 관련하여 매우 특별한 역할을 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관련하여 성막을 운반하고 유지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이를 아보다 (avoda) , 일, 특별한 임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물론 일단 성전이 건축되면 그 기능과 역할이 바뀌는데,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전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바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족보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가 사무엘을 제사장 중 하나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엘가나의 손자 고핫의 자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전체 족보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는 실제로 많은 본문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상당히 식별 가능하며 번역에서는 이를 역대기 기자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게르숨과 고핫과 므라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역할의 전체적인 변화로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의 이동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성전의 기능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전의 기능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은 예배이고, 예배의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음악입니다.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음악가를 지정하고 배정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섹션을 여기에서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편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 중 일부를 익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헤만 길드, 아삽 길드, 에단 길드가 있고, 이어서 그는 다시 제사장들의 명단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눈에 띕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시작하여 제사장으로 끝난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이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과 성전의 실제 구조와 기능에 대해 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역대기 저자는 제사장들이 지도자이고 그 주변에는 음악가들이 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악가들은 연대기에서 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성전 주변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악사들은 본질적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 기자는 음악가들을 묘사하기 위해 선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재산이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가진 것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읍뿐이었습니다. 여기서

Chronicler의 출처는 실제로 매우 명확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21장에서 여호수아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레위 사람들의 모든 도시를 지정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그의 출처를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 19장이나 여호수아 21장에서처럼 여호수아의 임무의 시작 부분에서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고핫의 성읍, 즉 제사장의 성읍 시므온과 베냐민으로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유다의 주요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성들이 있느니라. 그런 다음 그는 고핫과 게르숨과 므라리의 성들로 이동한 다음, 레위 사람들의 성읍들과 온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합니다. 이제 레위인의 도시의 기능 중 하나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사법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러 왔을 때 그들이 맡은 구체적인 임무 중 하나는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사법 제도에서 기능합니다.

이제 사법 시스템은 항상 어느 정도 복잡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언약은 괜찮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가 고의로 살인을 계획했는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언약 자체 내에서 명백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란 서스캐처원의 농장에 어떤 사람이 소, 즉 황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황소들은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항상 묶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소가 필요로 할 때만 그 황소를 밧줄로 고리에 묶어 내보냈고, 그의 일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그 황소를 우리에 다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황소를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의 이 구절이 황소를 소유한 사람에 관해 이야기할 때 황소가 풀려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매우 생생한 그림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황소가 풀려나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황소의 주인을

살인자로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 결정에는 많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은 특히 이 경우 황소를 소유한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었습시다.

그곳은 사법 도시였고, 그곳에서 모든 상황이 결정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손해 배상이 얼마인지, 처벌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시다. 때때로 우리가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도피성은 단순히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 그 사람의 거주지가 영구적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레위인의 도시로 지정된 특정 도시들이 있지만, 연대기 기자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설명을 완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레위인의 도시들을 항상 복수형으로 두 번 언급하는데, 한 번은 55절에서, 또 한 번은 67절에서 언급하는데, 두 경우 모두 연대기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한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어쩌면 그 시대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었겠지만, 모든 레위 사람들의 도시는 사법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장소인 도피성으로 간주되었습시다.

그러나 연대기 작가가 말하는 거주지를 보려면 지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도시 전체, 안타깝지만 레위 사람들의 도시 명칭이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관찰하게 될 것은 연대기 기자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즉 여기 예루살렘 바로 주변 유다 지역에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들에게 성전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근접한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 북쪽 끝까지, 북쪽 끝까지 레위 족속의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온 나라가 레위 족속의 성읍으로 덮여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대기 기자가 도피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본질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묘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그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레위인과 그들의 기능과 관련하여 그가 본 연대기의 역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들은 음악가로서 기능하고 예배의 측면에서 기능하지만 교육의 전체 활동 측면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기능하므로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상 생활에서 언약을 실천하는 모든 기능이 필연적으로 수행되는데, 이는 때때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관리하는 전체 사법 체계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연대기 기자에게 여호와와 왕국은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연대기 기자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두 번째 것은 인간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지내나요? 그것은 그들의 영토의 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그가 그의 시대에 예후드 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통제하는 영토의 크기는 여기서는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임명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능해야 하는 방식이며, 이것이 그들이 지금 기능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사원은 이것이 묘사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고, 왕국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사람들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와 어떻게 지내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인 토라를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레위인의 기능, 특히 가르치는 일과 예배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요 작업이지만,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함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종류의 작업도 함께 수행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이것이 다윗 시대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세션 5, 성전 순회 집회입니다.